

# 상인들 반발에…매번 진통 겪는 광주 ‘차없는 거리’

충장로1·2·3가 상인회 “금남로 도로 통제로 손님 줄어들어 상권 타격”  
5·18 1박2일 전야제 결국 축소…시민들 “공익행사인데 너무 한다”  
‘견자잉’ 행사도 특하면 차질…무등시장 차없는 거리는 방문객 크게 늘어

광주시 등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상인회 반발로 결집하면 축소되거나 변경되면서 지역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 이익을 위한 행사임에도, 자치단체가 상인들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는 지난 17~18일 1박 2일동안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18 전야제 행사를 상인들 반발로 축소해 마무리했다.

애초 행사는 18일 밤 9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17일 밤 11시에 본 행사를 끝내고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금남로 일대의 버스 전차를 철거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다. 미처 열지 못한 행사는 5·18 민주광장과 5·18기독교관 앞 도로 일부 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충장로1·2·3가 상인회가 ‘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행사 계획에 변경이 생겼다는 게 행사위측 설명이다.

상인들은 최근 불경기로 상인들이 극도로 민감한 상태인데 이를 연속으로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행사를 열 경우 충장로로 유입되는 손님이 줄어들게 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성 충장로1·2·3가 상인회장은 “5만여명 방문객이 모여들어도 음식점 몇 군데 장사가 잘 됐을 뿐, 옷가게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에 도움이 안 됐다”며 “차량 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주차장을 세워야 상권이 활성화될텐데 오히려 길을 막으려고만 하니 상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꼭마라 금남지하도상가 상인회장은 “금남로를 통제할 때 지하상가를 내려와 보면 알 것이다. 행사장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사람이 없다”며 “차 없는 거리로 행사를 해 봤자 사람들은 화장실과 주차장만 이용해서 몰랐던 더 나을뿐, 실제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인회 반발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좌절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2000년 전후부터 금남로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려다 여러 차례 상인들 반발로 무산된 적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첫째 주 일요일 금남로 도로를 통제하고 ‘견자잉’ 행사를 열고 있으나 이마저도 매 회 진통을 겪고 있다.

동구는 다음 달 열리는 견자잉 행사 날짜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인 오는 6월 7일에 열기로 했다.

애초 지하도상가의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정기 휴무일인 매월 첫 주일요일을 사업 운영일로 잡았는데, 상인들의 요구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다시 날짜를 옮기게 된 것이다.

금남로 차 없는 행사가 5·18 전야제마저 축소되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금남로가 상인들의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주말에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5·18을 다룬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역대급으로 많은 방문객이 몰렸는데도 되려 행사는 축소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면 오히려 주변 매출이 상승한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상인들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남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군분로 무등시장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및 야시장을 운영한 결과, 체류시간 20분 이상 방문객이 총 6만 419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방문객 3만 8845명)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 동구도 ‘견자잉’ 행사일 동안 매년 1만여명 넘는 방문객이 모였으며, 아들이 주변 상가로 확산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견자잉 행사 당일 방문객은 3월 1만 1698명, 4월 1만 1896명, 5월 2만 1046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기후식 5·18행사위 기획단장은 “상인들에게는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행사위가 대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면서도 “다만 상인들이 올해의 특수한 상황에 조금만 더 마음을 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노태우 부인 김옥숙 여사, 5·18묘지 참배

노태우씨의 부인인 김옥숙(90) 여사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9일 김 여사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에게 참배했다. 김 여사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5·18 구묘지도 둘러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도 참배했다. 김 여사는 묘지 관리사무소 측에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아들 노재현(60)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과 함께 묘지를 찾았다.

김 여사는 방명록에 ‘광주 5·18 영령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과거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굿어살피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방명록은 건강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김 여사를 대신해 노 원장이 작성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88년 노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5·18 구묘지를 찾아 이 열사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재 분진 씻어내는 살수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사흘째인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인근 도로와 보도의 분진 억제·저감을 위해 살수차가 운영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Z@kwangju.co.kr

## 금호타이어 2공장 붕괴 우려에 진화 차질

열 머금고 있어 재발화 가능성  
언제 완전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장기간 공장 가동 중단 불가피

화재가 난 광주 금호타이어 2공장이 붕괴 우려로 전면 통제됐다. 타이어 재료인 고무와 섬유 등이 늘러붙은 채 열을 머금고 마치 공룡알처럼 화석처럼 굳어 있다가 다시 발화할 가능성도 높아 완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간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생산 차질,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광주광산소방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로서는 완전까지 한 달이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건물 바닥과 천장 사이 구조물이 내려앉았고 벽도 휘기 시작하는 등 붕괴 조짐이 있어 이날 오후부터 내부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장 내부 발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무·철·섬유 등이 고온의 열을 머금고 수백 개의 공룡알 화석처럼 단단하게 뭉친 채로 공장 내부에 흩어져 있는데, 소방 호스를 공장 내부 80m 안까지 집어넣을 수 없다보니 완전하게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공룡알 화석같은 고무 덩이가 식었다가도 산소와 접촉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재발화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제대로 진화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시와 소방당국은 또 2년 전인 지난 2023년 3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한 소방·기계·전기 분야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화구역 및 피난 시설 등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점검은 한국타이어 화재 이후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광주시 등은 “당시 설비 주변의 가연성 물질 관리, 작업 전 안전 조치 철저 요망, 전기 분전반에 빠르게 접근하는 한계 대책 마련 등

을 권고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화재로 인해 대기오염과 주민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점검 항목과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2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한 기업의 재난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고”라며 “정부와 광주시는 사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정한 진상조사 및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밀감식에 나섰고 광산구도 구청 송정보건지소 1층에서 해당 화재 사고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피해 관련 신고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962건으로, 인적피해가 452건, 물질 피해는 369건으로 집계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경찰, 경기 시흥 살인사건 피의자 차철남 검거

경찰은 19일 시흥 흥기사건의 피의자인 50대 중 국동포 차철남을 검거했다.

차철남은 이날 일자 불상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살해하고, 이날 인근의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앞서 차철남(1968년 11월 14일생·중국 국적)에 대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차씨를 안산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